

민주당 변화 바람 이번에는...

■ 정세균 대표 주도 체질 개선 성공할까

“좌우 뛰어넘어 서민정책 개발 MB와 경쟁”

‘정세균플랜’ 관심... 비주류 반발 넘어야 할 산

재보선 연승으로 분위기가 고조된 민주당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변화는 정세균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과거 당내 신진 개혁세력에 의해 주도되던 것이 변화의 바람이었다면 이번 민주당의 변화 움직임은 당 대표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 연구되던 민주당 플랜을 넘어 ‘정세균 플랜’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정 대표는 김 원내장에게 ‘민주당 플랜’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플랜’은 지난 5월 분배 위주의 당 노선을 성장도 동시에 고려하는 중도개혁 쪽으

로 바꾸는 내용으로 초안이 나왔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단 서거, 진보 노선 강화를 내건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 등에 묻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당 핵심관계자는 2일 “다시 보강된 ‘민주당 플랜’이 내년 1월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발 민주당 변화 시도는 ‘통합과 혁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대표에게 당내 비주류의 반발이 아직도 만만치 않은데다 정동영 의원을 복당과 친노 세력과의 통합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재보선 연승의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하

는 정 대표의 의도는 이해되지만 구체적인 실천과 실적이 없을 경우 그 의 변화 시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일부의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찾단 속의 태풍이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정 대표의 대권을 향한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정 대표가 재보선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고 변화의 목적을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을 향한 진정성에서 찾을 때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광주 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강운태 민주당 의원(광주 남구)의 정치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의 내외부적인 환경이 강운태 의원의 광주시장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운태 의원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복당 당시만 해도 대선 출마 파문과 광주 남구 무소속 출마 등으로 강 의원에 대한 일부 배타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정운찬 국무총리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의 맹활약으로 당내 분위기는 크게 개선됐다.

강운태 의원 광주시장 출마 힘 받아

당내 우호적 분위기에 시민 여론도 호의적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운태 의원의 남구 지역위원장 복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민의 여론도 강 의원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광주시장 후보군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이 수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 분위기와 광주지역 여론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광주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지역 여론

도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강 의원의 광주시장 출마는 사실상 굳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강 의원의 그동안의 관망세에서 벗어나며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장 내부 조직과 외곽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접촉하는 등 광주시장 출마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강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는 광주시민의 뜻에 따를 것이며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광주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 광주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섬지역 교사 대란 우려 대책 세워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2일 섬지역 등 낙후 지역의 교사 대란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전남지역은 714명의 교사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급증하고, 교사 수업시간의 과도한 증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가속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가정복지도우미 조례’ 제정 간담회

○...광주시의회 양혜령 의원(동구1)은 4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맞벌이 가정의 저출산·육아 문제 해결과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정복지도우미 제도’ 도입과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육단체간 의견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의 제안한 ‘가정복지 도우미 제도’는 어우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노인들을 가정복지 도우미로 활용해 맞벌이 가정의 아이와 가사를 돌보는 제도다. 특히 가정의 필요에 맞춰 육아·교육·가사노동 등을 지원하고, 이들 도우미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은행’도 운영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산구의회 ‘금연 조례’ 추진

○...광주 광산구가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금연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광산구의회 최경미 의원(민노당·다 선거구)은 2일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 권리 보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광주 광산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제163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서는 각종 금연 교육과 홍보, 주민 자육에 의한 금연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완도 민주화동지회 DJ 묘역 참배

○...완도군 민주화동지회(회장 양재용) 회원 30명은 2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객들은 70년대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화운동 및 정치적 뜻을 같이했던 인사들로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이들은 묘역 참배 후 통교동의 김대중 도서관도 방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종시 총돌’ 與 계파 갈등 비화

친이계 “최종결정은 국민이 해야” 정총리 지지

친박계 이성현 부총장 당직 사퇴 박근혜 응호

세종시 축소론을 둘러싼 여러 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 축소의 총대를 멘 정운찬 국무총리와 원안고수 입장을 밝힌 박근혜 전 대표의 대립에 이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까지 갈등 구도에 합세하면서 계파간 힘대결 양상으로 치닫하고 있다. 친이계 인사들은 2일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 총리 지원에 본격 나섰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표를 겨냥, “세종시 문제는 ‘미연방’(未然防·멀리 앞을 내다보고 미리 대비)과 ‘미생지신’(尾生之信·우직하여 용무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킴)의 싸움”이라며 “정부는 연내 세종시 수정 방향과 원칙을 내놓고 여론의 올바른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성진 최고위원과 차명진 의원은 이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

다. 박 전 대표의 원안고수 입장을 여론몰이로 몰아갔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 최고위원은 “과거의 약속만큼 미래의 약속도 중요하다. 연내 세종시를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고, 차 의원은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해야 하며, 국민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며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도 풀뚝 뚫리며 박 전 대표의 입장을 응원했다.

친박계인 이성현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의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며 당직을 사퇴한다”면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과연 집권 여당의 모습인지, 공당으로서 민주주의 구현의 중심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친박계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은 친이계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근본이 흔들리니까 실현 불가능한 백가쟁명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국정 혼란과 정부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

‘차게이트’ 서갑원 의원 검찰, 징역 1년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박원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36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명백한 증거들이 드러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수수 금액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79회 공무원 합격의 힘! 역시 한빛고시학원이 해냅니다.

79회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합격선박이 합격률 결정했다

개강일: 11월 9일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암동 234-0234

한빛고시학원 대표대표는 한빛고시학원